

§ 교회 목표 §

- 1. 천국시민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Pilgrim

§ 2020년 표어 §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느 2:17, 엠 5:26-27)

十 행동 지침十

- 1. 약속의 말씀 위에 갱신되는 서울교회
- 2. 믿음의 계대 이루어 미래를 열어가는 우리 교회
- 3. 성경 권위와 충분성을 믿고 개인, 가정, 사회의 변혁을 이루는 주님의 교회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1 길 7 전화:(02)558-1106 팩스 : (02) 558-2107 http: www.iseoulchurch.or.kr



아들을 보내신 사랑 I

(요 3:16-17)

이종윤 원로목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요 3:16-17)

본문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목적,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후 18절은 신자와 불신자의 마지막 결과를 설명하고 있으며, 19-21절은 신자와 불신자가 받은 결과에 대한 원인을 설명합니다.

1.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목적

(1) 부정적인 측면의 목적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요 3:17 상)

17절 상반절은 먼저 하나님이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심판하시려고 보낸 것이 아니라고 하는 부정적인 말씀을 합니다. 이 말은 소위 유대인들의 묵시 문학적 사고에 대한 도전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사람들은 고난이 오면 하나님의 심판이 올까 두려워하지만 의를 행하다가 고난을 맞는 사람들은, “주 예수여 속히 오셔서 이 세상을 의롭게 심판하시고 당신이 다스리는 나라를 만들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하는데 이것을 묵시 문학적이라고 합니다. 유대 사람들의 메시아관은 이 묵시 문학적 메시아관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이스라엘에 어려움이 오니까 그들은 심판주 예수, 의로우신 그분이 빨리 오셔야 문제가 해결된다는 생각에서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심판하시는 메시아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유대 종교에서 파생된 종교라고 생각합니다. 철저한 오해입니다. 기독교와 유대 종교는 전혀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이와 같이 심판하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가)심판의 시기

심판은 과거적 사건입니다. 보통 ‘심판’이라고 하면 미래적 사건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유대인들이 ‘내게 지금 고난이 온 것은 쫓겨온 것이 아니고 의를 행하다 고난을 당했으니 마지막 심판 때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상을 주실 것이다’라고 하면서 미래적 사건으로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심판이 반드시 미래적 사건만은 아닙니다. 요한복음 12:31과 16:11을 찾아보면 “심판이 이르렀다” “심판을 받았다” 했으니 과거입니다. 심판은 이미 사단이 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서 죄를 범해서 고난이 왔을 때에는 내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매를 맞으면 감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정도로 이미 심판을 받았으니까 앞으로는 그런 심판이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심판은 미래적입니다. 심판은 두말할 것 없이 예수님 재림하는 날 있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심판은 현재적입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요 3:18).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 벌써 심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심판 날에는 면류관을 받을 사람도 있고, 하나님 앞에 책망받고 지옥에 떨어질 사람도, 이를 갈 사람도 있다고 했으니 오늘 하나님 앞에서 믿는 자가 받는 축복은 이 세상에서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는 벌써 축복의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역경과 환난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고, 기뻐하는 마음이 생기고, 찬송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임에 틀림없습니다.

성장하는 교회의 특징은 감사와 기쁨과 찬송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숙한 신자와 그렇지 않은 신자, 진짜 교회와 가짜 교회를 구분하는 방법은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감사가 있느냐, 기쁨이 있느냐, 찬송이 있느냐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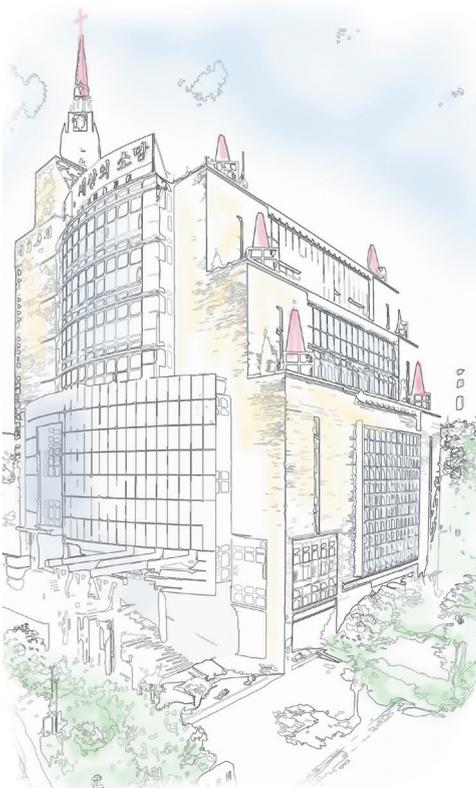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과거의 심판만이 아니고, 미래의 심판만이 아니고, 오늘의 심판도 우리가 받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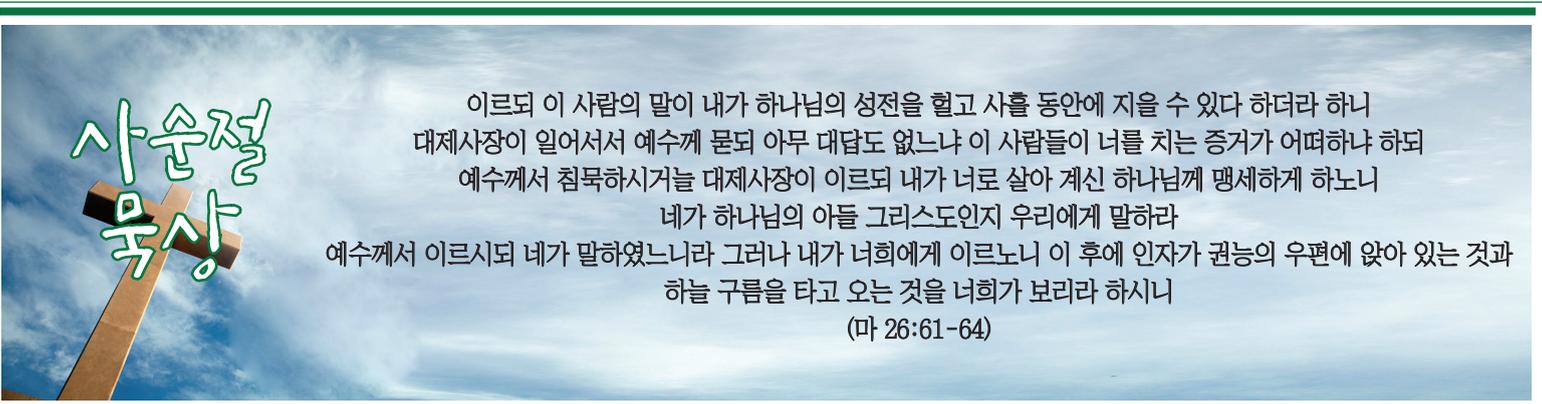
(나)심판의 성격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요 5:30). 하나님의 심판은 불의한 심판이 아닙니다. 세상은 종말이 올 때까지 계속 불공평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그 시간까지 이 세상에는 의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사도의 고민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교회의 갈등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의로워지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의를 외쳐야 되니 고민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위로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공의롭기 때문입니다.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요 8:16). 하나님의 판단은 참되고 진실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가짜에게 속지 않는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참과 거짓을 갈라놓는 심판입니다.

(다음 주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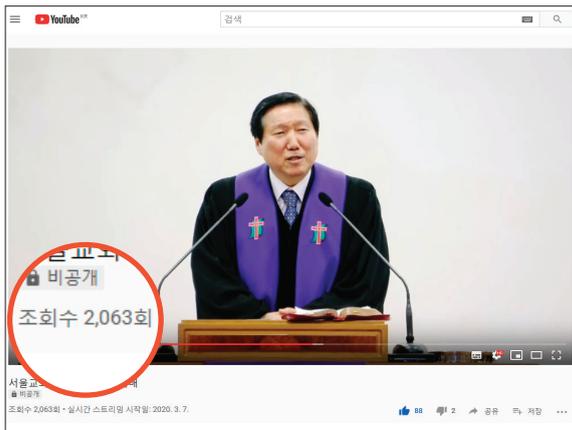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나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 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마 26:61-64)

주일예배 생방송 유튜브 조회수 2주 연속 2천여 건 돌파하다

교회는 코로나 19 감염예방을 위해 2주 동안 부득이하게 주일예배를 한시적으로 인터넷 실시간 예배로 대체하였다.

주일예배 생방송 유튜브 조회수가 3월 첫째 주에 이어 지난 주에도 2천여 명 이상이 접속할 정도로 많은 성도들의 관심과 참여가 있었다.

가정에서 유튜브 접속이 가능한 기기라면 종류에 상관없이 실시간 예배가 가능하오니 성도들은 교회 문자로 보내드리는 아래의 유튜브 채널에 따라 이번 주에도 가능한 주일 오전 9시에 제공되는



3월 8일 주일예배 생방송 조회수

1부 실시간 예배에 시작 5분 전부터 기도로 준비하여 함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유튜브 검색 화면에서 '서울교회 공식 유튜브'를 검색하여 인터넷 예배에 참여하기 바란다.

접속이 기술적으로 어려운 성도들은 사무국(02-

558-1106)으로 연락하여 별도 안내받으시길 바란다.

- 유튜브 채널 링크 : <https://www.youtube.com/channel/UCziHchZP8YwmR9UYpoXJrA>

호산나대학, 코로나19 대비 소독 방역 활동

- 입학식 취소·개강 3월 23일(월)로 연기 -

호산나대학은 지난 2월 28일(금) 코로나19 감염과 확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대학 내 교육 시설물에 대한 소독 방역 활동을 실시했다.

코로나19 위기 대응 경보단계가 '심각' 단계로 격상에 따른, 대학 내 예방 및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해 2020학년도 입학식 취소와 1학기 개강을 3월 23일(월)로 연기하였다.

호산나대학은 코로나19 확산 우려에 따른 대학 내 전공학과 실습실, 강의실, 체육관, 식당, 기숙사, 호산나애견직업훈련센터 등 주요 시설에 대한 소독 방역 대응 조치를 지속적으로 시행하



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가평군 보건소의 협조를 통해 가평군 방재단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작업을 지난 2월 26일(수)에 실시했다.

호산나대학은 코로나19 지역 내 감염 차단을 위해 교직원을 대상으로 유연근무제를 병행하는 한편, 교내 학교기업인 트랜스코스모스코리아와 포르투게더 학생 근로자는 2주 동안 재택근무제로 운영하도록 했다.

발달장애인 학생들과 교직원의 안전이 가장 우선이라 생각하며, 하루빨리 코로나19 종식과 대학 내 안전한 교육 환경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교회 회복을 위한 기금 기부자 명단

김동진·박진주 안흥희·전화진 한길동 최영찬 윤종현

(다음 주 계속)

* 기부금 입금 계좌 : 신한 110-481-143925 노문환 (서울교회장로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청년들 중, 군에 나가있는 청년이나 입대 예정인 청년과 대상 청년의 가족을 비전2020 도고팀에 알려주세요.

군대에 있는 동안 좋은 상관과 동료들을 만나고 저들의 신앙과 안전을 위해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 비전2020 도고팀장 김명심 권사
- 010-2002-6644

호산나애견직업훈련센터 애견호텔 운영

1. 전문 훈련사 24시간 관리
호산나대학 부설기관에서 운영 관리
2. 최대의 실·내외 호텔 놀이터(운동장)
2019년 9월 신규 오픈 및 가평 최고의 시설 보유
3. 개인 하우스 운영 및 무료 픽업
애견 크기에 따른 개인 Room 운영과 * 위생 목욕 서비스
4. 입실 시 항체검사서 확인필
(감염, 파보, 홍역 / 결과 4 이상 시 이용 가능)
5. 문의 : 호산나대학 : 031-585-9184
010-6420-9307 박창집(전공학과장)



故 이재만 집사님을 추모하며



이용성 집사(11교구)

지난 3월 7일(토) 오후 5시 33분, 91세를 일기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신 故 이재만 집사님은 이난희 권사의 아버지이자 저의 장인어른이기에 앞서 인생의 스승 같은 분이셨습니다. 한없이 인자하시고 사랑이 많으셨던 장인어른은 소박한 생활과 신실한 크리스천의 삶을 사신 정직한 분이셨습니다. 아인슈타인을 동경한 그는 학창 시절 뜻한 바가 있어 의학 대신 물리학도의 길을 택하셨고, 대학에서 후학 양성과 학문 탐구에 평생을 바치신 물리학자였습니다. 올곧게 사신 인생에서 편한 길을 가기보다 남들이 가지 않은 새로운 길을 가신 개척자이셨으며 자연을 사랑한 휴머니스트이셨습니다.

전북 김제의 유교적인 가정에서 태어나 청년 시절 하나님을 만난 것이 계기가 되어 평양에서부터 3대째 이어져 내려오며 믿음의 가정에서 성장한 장모님(김은홍 권사)을 만나 65년간 사시면서, 1남 1녀를 자녀로 두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큰 축복 속에서 겸손과 온유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러나 장미에도 가시가 있듯 아픔도 겪으셨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사랑하는 아들을 먼저 보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서울교회 본당 왼쪽 맨 뒷자리에 앉아 눈을 감고 조용히 기도하던 처남(안수집사)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소아과 의사였던 그가 치료를 위해 서울에 오면 꼭 예배를 드리러 오던 곳이 서울교회였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는 2015년 8월 14일 병마를 이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늘 온화한 미소를 잃지 않으셨던 장인어른은

아들을 잃은 슬픔에 대해 한 번도 내색을 안 하셨습니다. 깊은 신앙심과 한학에도 밝은 학자로서의 넓은 마음, 그리고 항상 평정심을 잃지 않은 품위를 갖고 계셨기에 그런 줄 알았습니다. 지난해 가을 단풍이 곱게 물든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들의 이름을 애뜻하게 부르시며 “보고 싶다”라고 흐느껴 우시던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가슴속에 고이 간직한 감정의 독이 그만 터지고 만 것 같았습니다. 장인어른의 그러한 모습을 본 것은 그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고 너무나 인간적으로 느껴지며 가슴 속에 잔잔한 파문이 일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감동은 생각이 하나가 되는 데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같은 마음이 됨으로써 생겨나는 것 아닐까 싶었습니다.

지난해 전주에서 서울로 올라오신 후로 서울교회 예배를 늘 그리워하셨으며 교회가 속히 정상화되기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시간표는 정확했습니다. 노환으로 인하여 운명의 시간이 다가오며 따라 하나님께서는 미리 가족들과의 이별의 시간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사랑을 유산으로 남기시고 평화로운 모습을 한 채 영생의 길로 떠나시기 전 며칠 동안 기도하며 작별 인사를 나눌 수 있었던 점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3월 8일 입관예배와 3월 9일 발인예배를 인도해 주신 서명철 목사님과 예배에 참석해 주신 서울교회 성도님들과 운구를 담당해 주신 집사님들의 위로에 깊이 감사드리며, 전주 근교에 있는 선영에 무사히 안장을 잘 마칠 수 있도록 큰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천국시민양성 - 교육1국

주님의 귀한 보배들



코로나 19 사태로 교회에서 예배를 못드리는 가운데 영아·유아·유치·유년·초등부는 교회학교 예배를 각 교회학교가 속한 SNS나 밴드에 해당 부서 교역자들이 매 주일 메시지를 올림으로 예배를 대체하고 있는 가운데 많은 어린이들이 주일 아침 9시부터 예배에 참여하고 인증 샷을 남기고 있다.

(4면에 계속)



*지난 3월 8일 주일 예배 인증 샷을 남긴 어린이들

1. 권도영 2.최아준 3.최지성 4.김레아 5.김수아 6.김하준·은준·연준 7.최무건 8.한예승
 9. 주하은·하연 10.유하은·하민 11.유서윤·다연 12.오선아·승아 13.최주하·무진
 14.노윤·노준 15.김도윤 16.우정균·정서 17.오수빈 18.임라임·준우·시우 19.조연우·건우
 20.이윤익 21.오유민 22.김종혁·종현 23.이주호·윤후 24.김채운 25.임하림·하을
 26.장유정 27.한세아·세희 28. 최은성

등정

■ 기증 : 8교구 유은경 집사 방역용 방호복 30벌

서울 주간기도

- 주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코로나19가 소멸되게 하시고, 우리나라와 교회와 세계를 오늘의 위기로부터 지켜 주옵소서.
2. 우리교회의 모든 송사를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교회가 속히 회복되고 재건되게 하옵소서.
3. 나라의 지도자들과 온 국민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라를 바로 세울 수 있게 하시며, 복음화 된 통일조국 속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전교인 성경읽기표

교구(부서):

이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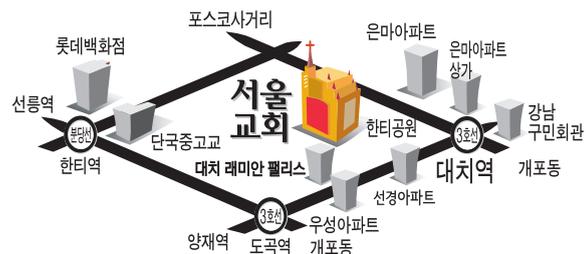
일 자	요일	1년 1독	확인	1년2독	확인
3월16일	월	수 18-19		느 8-13	
3월17일	화	수 20-21		에 1-10	
3월18일	수	수 22-24		욘 1-6	
3월19일	목	삿 1-3		욘 7-13	
3월20일	금	삿 4-6		욘 14-20	
3월21일	토	삿 7-9		욘 21-28	
3월22일	주일	삿 10-12		욘 29-34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딤후 3:15)

■ 예배 및 집회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배	오전 9시	본당
	II 부 예배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예배	오후 2시	
	찬양 예배	오후 5시	
	English Worship	오전 11시 20분	
수 요 예 배	II 부 예배	오후 7시	웨스트민스터 홀
새 벽 기 도 회	오전 5시 30분(월-토)	본당	

■ 교회 오시는 길



■ 서울교회QR코드

